

문화수도 기본틀 다시 짜라

광주시·시민단체, 문광부 계획안 반발
“다음 정권에 넘기더라도 전면 재검토를”

문광부가 최근 공고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종합계획안’에 대해 광주시와 시민단체, 문화전문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대부분이 반발하고 있다. 문광부는 지난달 자체적으로 마련한 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을 공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 등은 문화전담의 랜드마크 기능 보완 등 광주지역의 요구사항이 문광부의 종합계획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계획안 확정 시한(4월 말)에 관계없이 문화도시 사업의 ‘새틀’을 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문광부와 광주 지역사회간 이견은 문화산업 육성방향, 문화전담의 기능 보완, 도시리모델링 추진 방향, 재원 조달 방안 등 문화도시 사업 전반에 걸쳐 있다. 광주시는 논란의 핵심이었던 문화전담의 랜드마크 기능을 강화할 것과 건물의 역할도 보완할 것을 요구해왔다.

양측의 이견으로 인해 광주지역 일각에서는 300억원의 문화전담 설계비를 버리더라도 문화전담을 재설계해 세계적인 건축물로 건립하는 등 문화도시 사업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최고 심의기관인 조성위원회 송재구 위원장이 최근 광주시의회 문화수도 특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업 자체를 다음 정권에서 추진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새틀’ 짜기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광주경실련과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개혁연대, 참여자치21 등 광주지역 10개 시민단체들은 이달 내에 ‘광주문화도시협의회’를 구성, 문광부의 종합계획안에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한 문화전담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광주 동구 주민들은 문광부 주도의 종합계획안을 반대하는 13개 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의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이달 초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및 전반적인 평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던 형태라도 문광부 종합계획안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류재한 전남대 교수는 “문화전담을 비롯한 종합계획 확정 연기 등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안 주요 쟁점

문광부	쟁점	지역 사회
지하설계	랜드마크	건물의 외형미와 규모 확대
교육·연구	문화전담	주요기능
제작·유통 등 인프라 조성	문화 산업 육성	국제 문화·관광시설
7대 문화지구 조성	도시 재구성	개입산업육성 및 관광문화단지 조성
문화전담 국고지원 나머지 지방비 원칙	재정 지원 원칙	도심활성화를 통한 파급효과 공유
		전역 국고 지원 요구



달집도 한반도 평화 기원

화순군 공무원노조와 농민회 주최로 지난 3일 화순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열린 정월대보름맞이 달집태우기 행사에 참가한 주민들이 떠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한 해의 평안을 기원하고 있다. 한반도 형상의 불꽃 모습이 이채롭다. /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北 초기단계 이행 강한 의지”

천영우-김계관 뉴욕 회동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지난 3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에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양자 회동을 갖고 6자회담의 2·13 합의에 따른 실무그룹 회의 운영 방안을 협의했다.

〈관련기사 6면〉

천 본부장은 이날 저녁 김 부상이

머물고 있는 맨해튼 밀레니엄 호텔에서 김 부상과 50여 분간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북측이 초기단계 조치를 이행할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천 본부장은 “북측은 초기단계 이행(영변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재개)에 합의할 것을 이행해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앙드레 김 조명등’ 만든다

대방포스텍, 앙드레 김과 디자인 협약
9월부터 생산...中·日 등 세계시장 공략

광주에서 생산되는 첨단조명 제품이 패션디자이너 앙드레 김과 만나 세계 제패에 나선다. 조명기기 생산업체인 대방포스텍(광주시 광산구 첨단산업단지·www.onoff21.co.kr)은 지난 4일 “국내 조명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앙드레 김 특유의 문양을 조명제품에 새겨넣는 기술협약을 김씨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방포스텍은 오는 9월부터 ‘ANDRE-KIM LIGHT’라는 조명브랜드 생산에 들어가며, 같은 달 5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국내외 조명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런칭쇼를 갖고 국내외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앙드레 김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김치냉장고와 드림세탁기에 자신의 디자인을 넣었으며, 올해에는 2007년형 하우젠에어컨 신제품에 꽃과 나비문양을 새긴 적



이 있다.

대방포스텍 이현도(44) 대표는 “지난 1월 앙드레 김의 디자인과 브랜드, 대방포스텍의 기술력과 품질을 합치면 세계 조명시장을 선도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새 브랜드의 경제 효과는 2년 안에 현재 매출의 2~3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방포스텍은 런칭쇼에 이어 올해 전국에 10개의 대리점을 개설한 뒤 내년까지 30개로 넓히는 한편 중국·일본 등에도 해외지점을 만들어 세계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게 된다.

특히 저가시장은 기존의 ‘온-오프(ON-OFF)’ 브랜드로 공략하고, 국내 고가시장과 해외시장에는 ‘ANDRE-KIM LIGHT’로 유명 메이저들과 경쟁한다는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조명제품 판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병원·관광 등 대형건물을 장식하는 경관조명사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1996년 설립된 대방포스텍은 광주와 중국 현지공장에서 100여종의 첨단조명을 생산, 지난해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53건의 산업재산권 가운데 디자인 분야만 40건을 등록했고, 지난해에는 푸라우 마리오라는 이탈리아 디자이너와도 협약을 맺는 등 독특한 조명 디자인을 통한 틈새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새 총리 후보 전문철·김우식·한덕수씨 압축

노대통령, 8일께 지명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6일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한명숙 총리가 물러남에 따라 이번주 중 새 총리를 지명, 국회 인준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한 총리는 오는 7일 퇴임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새 총리는 8, 9일께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노 대통령은 새 총리를 ‘정치형’ ‘코드형’ 총리가 아니라 ‘실무·행정형’ 총리로 인선할 방침으로, 전문철(68) 감사원장, 김우식(67)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한덕수(58)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최종 총리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새 총리가 참여정부 임기 말 총리라는 점을 감안해 새로운 어젠다를 창출하고 주도하는 정치인 출신보다는, 국회 인준이 무난하고 각종 정책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관리형·정책형 총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임기 말까지 빈틈없이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에 정통하고,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있는 분 중에서 새 총리 인선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망학원 장학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mbu.ac.kr
진남과학대학
www.chunam.ac.kr

76%
피부 시간을 뛰어넘는
삼경김

IOPE